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6941.39	↑ 코스닥	919.92
	(-62.35)		(+26.63)
↓ 금리 (한국은행)	3.933	↓ 환율 (한·달러)	1342.30
	(-0.004)		(-1.70)

금리의 역습... 韓, '채권자경단' 감시망 오르나

美 채권금리 5%대 '복병'

美 이어 日·英도 국제채금리 폭등
韓도 10년물 금리 4% 훌쩍 넘어
국제발행 증가 '투매' 이어지고
연준 기준금리 인상접처 '악재'

빌 클린턴 집권 2년 차였던 1994년, 미국 10년물 국제채 금리는 연초 6.2%에서 연말 8.2%까지 치솟았다. 국제채 금리가 뛰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복지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클린턴 정부의 계획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국제 발행이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불안이 채권 투매로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공포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94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시장 일각에서는 국제 투매로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채권자경단' 무대가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도 더이상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한국 국제채가 세계국제채지수(WGBI)에 편입된 후 42조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에 유입됐다. 나라빛은 1400조원에 달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고빈도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채권자경단의 활동이 '순간적 유동성 증발(Flash Freeze)'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다.

◆세계 금융시장 흔드는 미국

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제채금리는 장중 5.347%를 찍었다. 2002년 4월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



오늘 누리호 5차 발사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발사대에 기립·고정되는 과정. <관련기사 L4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년물 금리도 장중 5.702%까지 상승했다. 일본 30년물 금리는 199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고 있고, 일본 10년 만기 국제채 금리도 3%를 넘어서는 등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영국 30년물 국제채금리는 5일 장중 6.02%까지 올라 1998년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가 5.945%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10년물 국제채금리는 4.917%에 마감해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도는 9.2%를 기록했지만, 과열된 경기를 가

라앉히고, 뛰는 물가를 누르기 위해 한국은행이 10월 또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3.0%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6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69%까지 뛰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채권자경단(Bond vigilantes)'의 귀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권자경단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국채를 투매(금리 급등)해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조직 형태는 아니지만, 소규모 헤지펀드나 채권투자가 집단으로 행동해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 월가의 손잡는 투자전략가였던 에드 아테니가 1983년에 처음으로 쓴 단어다.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 에드워드 아테니 아테니 리서치 대표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채권자경단"의 복수일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로 금리에 가깝게 쌓아 올린 그 수많은 부채를 이제는 현재의 고금리로 차환(리파이낸싱)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저축은행 해킹... 고객 불안 확산 '집단 대응' 움직임

금융사·온투업 연쇄 해킹피해 발생
일부 고객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KB국민·하나은행 등 전수점검 나서

금융권 해킹 사고로 금융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주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고객인 만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예가람·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와 피에프씨티(PFCT)·모우다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서다.

특히, 담카페와 소상공인 카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2금융권까지 고객 정보 유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주부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 "민증 바뀌야 하나", "자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니까 더 이상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집단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지난 2일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은행 측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무엇을 피해로 볼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아직 아무 말이 없다"면서 "같은 처

지인 사람들끼리 정보를 나누고자 카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은행 유출 건도 진행하느냐"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업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소비자 한 명이 여러 기업의 유출 사고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편,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공격에 사용된 악성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한 뒤 추가 보안 취약점을 점검했다. 하나은행도 악성 IP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전수 점검하면서 추가 침투 여부를 점검했다.

저축은행권도 피해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섰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인터넷 주소(IP)를 차단했다고 안내했다. 현재는 고객 피해구제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다.

예가람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보유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접수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출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도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한 뒤 피해 구제를 위한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여야, 대미투자·호남반도체 공방...與 “정보유출 고발” vs 野 “호남 일극성장”
▲김정관 “알래스카 LNG, 사업성 낮았지만 중동 전쟁 후 전략적 가치 생겨” /사진 뉴시스

▲국감장 누빈 中 휴머노이드...“韓 피지컬AI 투자 턱없이 부족”
▲추미애 “12억 관사”·김승원 “가족 조합” 경찰 수사 속도

▲경찰, ‘암살자(들)’ 고발 종로서 배당...“배우 협박엔 법적 조치”
▲‘성범죄 기소유예’ 경찰관 채용 논란...서울청장 “법 개정 논의”